

북한 내 건물유적 남북공동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미

박성진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1. 머리말

지금까지의 문화유산 분야 남북교류협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이 중 사찰과 궁궐을 중심으로 한 건물유적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는 교류협력의 핵심사업으로서 사실상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왔다. 그렇지만 인접 학문분야인 역사분야의 남북협력에 비해 고고분야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유적과 유물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의 특성상 필연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고고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특히 건물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3년 금강산 신계사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개성 공업지구 내 문화유적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고고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2006년에는 평양일대의 고구려 유적과 안학궁에 대한 남북공동조사가 추진되었으며 이후 2007년에는 개성역사지구 내의 고려궁성(만월대)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전시기와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교류와 공동조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의 현실에서도 이후 진행될 보다 발전된 단계의 건물유적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고고분야, 특히 건물유적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의 성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 내 건물유적 남북공동 발굴조사 현황

1)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발굴조사

한국전쟁 당시 크게 훼손된 신계사는 1960년대 유적에 대한 일부 정비를 통해 북한 국보유적 제 95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신계사에 대한 학술조사는 2001년 11월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03년 11월 1차 발굴조사를 추진하였다. 이후 2007년 까지 총 6차에 걸친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차수	기간	내용
1차 발굴조사	2003. 11. 9. ~ 25.	대웅전지, 탑 주변, 만세루지 일곽
2차 발굴조사	2004. 8. 3. ~ 25.	만세루지, 탑주변
3차 발굴조사	2005. 5. 3. ~ 31.	신계사 2구역 4,500㎡, 최승전터 900㎡
4차 발굴조사	2005. 8. 30. ~ 9. 15.	대웅전 주변 1구역 전각터 1,600㎡
5차 발굴조사	2006. 8. 11. ~ 9. 8.	2구역 수승전 추전지역 840㎡
6차 발굴조사	2007. 3. 20. ~ 4. 10.	3구역, 6구역 11,226㎡

1차 발굴조사에서는 고려중기 · 여말선초 · 조선중기 · 조선후기 · 일제강점기 유물들을 확인하였으나 1887년 중창유구 및 이전시기의 대웅전 평면 형태와 초창기 불전 유구의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한 현재 탑의 이전 여부와 만세루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와 조선 후기 유구에 대한 성격 규명이 이루어졌으며, 최승전터 발굴조사에서는 1919년 · 1911년 조성된 유구와 보다 앞선 시기인 조선중기 유구를 확인하였다. 4차 발굴조사에서는 대웅전 주변으로 칠성각터 축성전터(노전 · 대향각), 극락전터(영산전), 범종각터, 나한전, 어실각터(용선전) 등 일제강점기 · 조선후기 층을 확인하였고 5차 발굴조사에서는 3차 조사에서 확인된 수승전터를 전면조사하여 조선후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토층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한편 6차 발굴조사에서는 3구역 · 6구역 발굴조사를 통해 사찰 내 편의 시설로 추정되는 유구를 확인하였다.

2001년부터 추진된 신계사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함께 발굴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남북교류사에 일획을 그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건물유구를 확인하고 출토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고학적 방법론을 비교하는 등 고고학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개성 공업지구 문화유적 남북공동조사

남북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개성공업지구의 조성과정에서 확인된 고고유적에 대한 보존을 위해 남측의 토지박물관과 북측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2004년 4월 20일~7월 31일까지 지표·시굴·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4월 20일~5월 6일까지 이루어진 지표조사를 통해 12개 지점에서 구석기·신석기·고려·조선시대의 유물을 수습하였고 조선시대 분묘 4기를 확인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시굴·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전기 주거지 1기, 고려시대 건물지 4기와 온돌유구, 고려~근대 토광묘 19기·회곽묘 13기, 화장묘 2기·석곽묘 1기 등을 조사하였으며 토기·자기·기와 등의 다양한 유물을 확인하였다.

신계사 남북공동발굴조사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남북공동발굴조사는 라는 점에서 개성 공업지구 남북공동발굴조사는 남북간의 고고학적 교류와 건물유적 조사의 기틀을 더욱 돈독하게 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3) 안학궁 남북공동 발굴조사

2006년 고구려연구재단이 정부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회의 도움을 받아 김일성종합대학·사회과학원·문화보존지도국과 공동으로 평양

의 안학궁을 조사하여 핵심이 되는 성벽 건물지와 출토 다양한 유물을 확인하였다.

안학궁은 평양시 중심으로부터 동북쪽 8.7Km지점에 위치하며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427년부터 평원왕이 장안성으로 천도한 586년까지 약 160여 년간 고구려의 수도로써 기능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한에서는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격적인 연구에 한계가 많은 상황이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이미 1958년부터 1971년까지 대성산성, 안학궁터, 고분군 등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들에 대한 조사와 발굴사업을 진행하여 안학궁이 고구려 평양 천도 시 왕성이었음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본 학자들의 경우 안학궁이 고구려유적이 아닌 통일신라 혹은 고려시대 도성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4)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2007년에는 개성일대의 문화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개성고려궁성(만월대)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2014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는 남한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주관하고 남한의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과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발굴조사는 정전(正殿)인 회경전이 위치한 '중심건축군' 서쪽지역의 약 33,000㎡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30여동의 건물지를 확인·조사하여 10,000여점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2011년 추진된 긴급복구조사에서는 수해로 훼손된 유적에 대한 복구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석축 붕괴구간에 대한 복구 및 회경전 중심축대에 대한 3D 스캔작업 등 유적의 보존과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2년여의 기간 동안 발굴조사가 중단되었으나 2014년에는 6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고려궁성 내 최대 규모의 계단과 다양한 배수시설이 확인되었다.

차수	기간	성격	내용	성과
1차	07.5.~7.	시굴	‘서부건축군’ 시굴조사	건물지 40여동 확인 축대 및 배수로 등 확인
2차	07.9.~11.	발굴	제1건물지군 발굴조사	건물지 5동 발굴
3차	08.11.~12.	발굴	제2, 제3건물지군 발굴조사	건물지 10동 발굴
4차	10.3.~5.	발굴	‘추정건덕전구역’ 발굴조사	건물지 5동 발굴
복구조사	11.11.~12.	복구	‘서부건축군’ 복구조사	-
6차	14.7.~8.	발굴	제5건물지군 발굴조사	대형계단 및 배수로 발굴

개성 고려궁성은 2013년 6월 북한의 두 번째 세계유산인 ‘개성역사유적지구’의 12개 유적군 중 ‘만월대’라는 명칭으로 포함되어 유적으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정받은바 있다. 이와 같은 개성 고려궁성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는 신계사 발굴조사 이후 남과 북이 함께한 장기 공동발굴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남북공동 발굴조사의 성과와 한계

2003년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남북공동발굴조사는 분단 이후 남과 북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문화유적’, 그 중 건물유적 이라는 동일 대상을 중심으로 장

기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남북교류 및 관련분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금강산 신계사에 대한 발굴과 복원의 경우 동일 유적에 대해 지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복원공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추진 과정을 통해 문화유적의 조사와 복원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성 공업지구의 조성과정에서 이루어진 남북공동발굴조사는 북한 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긴급한 성격의 구제발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향후 북한 내 남북공동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개성공단 조성 과정에서 진행된 남북공동발굴조사의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 안학궁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는 간접적으로 밖에 접할 수 없었던 평양의 고구려 유적을 직접 조사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고구려사 연구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평양지역에서 추진된 최초의 남북공동조사로서 향후 개성지역과 더불어 북한 내 2대 고도(古都)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개성 고려궁성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는 신계사 발굴조사와 더불어 장기간 추진된 사업으로 남한의 문화유산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향후 남북 당국 간의 협력을 위한 중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 내 문화유산 특히 건물유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공동발굴조사는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조사의 일시 중단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우리 정부의 민족문화유산 남북공동보존 분야의 활성화 기조와 더불어 향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 내 건물유적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민간·종교·공사·국립기관 등 다양한 성격의 조직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춰 추진하였다. 2003년부터 시작되어 10년 동안 이어져온 이러한 남북공동발굴조사는 짧은 진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성격의 조사기관들이 다양한 유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모든 사업이 북한 내에서 추진되며 북한 연구자들과의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관련분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남북분단으로 상이하게 발전된 각 학문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북한 내 건물유적에 대한 남북공동 발굴조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내 건물유적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는 남북간의 직접 교류 및 학술자료 축적이라는 면에서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현실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남북간의 긴장 상황은 남북공동조사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공동조사 조건이 제약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한 인원의 일반적인 평양지역 체류 기간은 약 15일 미만으로 정상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발굴조사의 특성상 다종·다량의 물자가 수시로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적시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4. 맺음말

2008년 이후의 남북관계 경색은 민족문화유산 분야 특히 건물유적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현재는 개성 고려궁성을 비롯한 소수의 사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시점을 대비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단계적 구상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는 실질적 통일준비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과거 남북공동조사의 경우 남과 북이라는 특수관계의 틀에서 추진되었으나 최근 북한의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북한 내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국제기구와 제3국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2014년 북한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개성 남대문을 비롯한 개성일대의 성곽에 대한 프랑스-캄보디아 조사단과 북한의 공동발굴조사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황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렇듯 국제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북한 내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남북 간 협력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존을 중요시하는 문화유산의 특성상 기존과 같이 발굴조사로만 구성된 교류를 지양하고 유적의 지속성과 역사성을 복원할 수 있는 조사·연구·복원의 모델과 이를 구체화 시킨 관련 당국의 정책적·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